

성남 백배즐기기

아름다운 남한산성 성곽 기행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는 병자호란(1636년). 그 겨울의 참혹했던 때를 생각하며 오름길과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남한산성 성곽(11.7km) 트레킹을 시작한다.

행정구역상 성남·광주·하남을 경계로 이어지는 남한산성은 청량산과 서문의 연주봉, 동문의 별봉 등 많은 봉우리가 성벽으로 둘러 싸여있다. 산성역에서 52번,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서 9번 버스를 타고 내려면 성남과 광주의 경계에 위치한 남문(지하문)이다. 하늘이 맑고 투명해서 겨울산행의 즐거움이 저 하늘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문 - 수어장대(30여 분)

수어장대로 가는 길은 오름길이다. 한쪽 팔을 내밀어 등산객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소나무 아래서 눈앞에 펼쳐진 성남시를 바라보고, 잠시 우리 동네 찾기 놀이를 하며 숨을 고른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친히 군사를 지휘, 격려하면서 항전했다는 수어장대에 도착. 서울 조방관의 시작이다. 멀리 남산타워와 한강을 보며 지척에 있는 서문(우익문)으로 향한다.



남한산성 성곽

----- 성곽

수어장대 - 서문(10여 분)

세월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워 소나무 군락길이 북문(전승문)까지 이어진다. 수많은 이야기를 곁에 감춘 소나무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아름답다. 일제 강점기에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금립조합을 만들어 벌목을 막았던 303명의 마을 주민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가장 전망이 좋은 서문(우익문)은 등산객이 많고, 인조가 이 문을 통해 삼전도로 내려가 청 태종에게 항복한 아픈 역사가 서려있다.

서문 - 연주봉 웅성 - 북장대터 - 북문 - 동장대터(60여 분)

하남시가 시야에 가득 펼쳐진다. 대부분 내리막길을 따라 연주봉 웅성, 북장대터, 북문(전승문)까지 순조로운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동장대터로 가는 길은 소나무 군락길에서 참나무·단풍나무 등 혼합림 길이다. 성곽 기행 중 가장 힘든 오름길 구간이지만 나무계단으로 정비돼 있어 눈이 쌓인 날 외에는 안전한 산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

동장대터 - 장경사 신자웅성 - 장경사 - 송암정(45여 분)

남한산성엔 다섯 개의 웅성이 있다. 적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일차적 방어를 목적으로 이중 성벽을 쌓았는데 그 중 장경사 신자웅성은 말발굽처럼 생겼다. 웅성 앞은 말 잔등 같은 능선들이 맞닿아 장관을 이뤄 힘들게 오른 보람을 느끼게 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남한산성을 지을 당시 산성 짓는 일을 도왔던 승군들이 훈련을 받으며 머물던 장경사를 지나 소로(小路)의 정취를 들쭉 느낄 수 있는 송암정을 거쳐 동문에 도착한다.

동문 - 남문(40여 분)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다. 표지판이 곳곳에 있고 구간마다 정비가 잘돼 있어 산행에 불편함이 없다. 성곽을 돌아보며 노승과 성벽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본다. 병자년의 혹독한 추위와 참혹한 역사를 함께 견뎌낸 노승과 성벽이 자랑스럽다. 현재 경기도는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 중이다. 남한산성의 아름다움이 세계속에 알려질 그날이 오길 기대한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 조민자 기자 dudldk@hanmail.net

비전성남
Vision SeongnamJanuary 1
2010년 1월·통권 제174호<http://snvision.cans21.net>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홍보담당관실 | 주소 우462-1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전화 031-729-2075~6 | 팩스 031-729-2089

Contents

2 시청포커스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시청사3 시청포커스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 승인8 특집
시민 9인의 천년 메시지16 성남 백배즐기기
남한산성 성곽 기행

지난 12월 12일 성남시청사 내에 개장한 아이스케이트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아이들이 스케이팅 실력을 뽐내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사진 | 홍보담당관실 최선일

즐거운 겨울을 만나자!

겨울 레포츠 시설 개장

시 곳곳에 겨울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놀이공간이 탄생했다. 이번 겨울, 춥다고 웅크리지 말고 겨울 열기 후끈한 이곳 놀이터에서 '빙판의 요정'이 되어보자.

야외스케이트장



장소 시청 신청사 내 프로그램 주차장

운영기간 2009. 12. 12~2010. 2. 21

이용료 1천원(스케이트 · 안전모 포함)

이용시간 1회 1시간 30분(6회차는 겨울방학 이후)

1회차(09:30~11:00) 2회차(11:30~13:00)

3회차(13:30~15:00) 4회차(15:30~17:00)

5회차(17:30~19:00) 6회차(19:30~21:00)

스케이트교실 2009. 12. 28~2010. 2. 5

- 1주일 단위(월~금)로 반 편성(강습료 1만원)

- 시간 : 1회차(09:00~09:50) 2회차(10:00~10:50)

- 대상 : 만 6세 이상

- 신청 : 홈페이지(www.simc.or.kr) 선착순 접수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부 725-9462

눈썰매장



장소 성남종합운동장 내

운영기간 2009. 12. 12~2010. 2. 21

입장료 1천원(6세 이상 무료)

이용시간 1회차(09:30~11:20) 2회차(11:40~13:30)

3회차(13:50~15:40) 4회차(16:00~17:50)

토 · 일요일, 공휴일은 5회차(18:00~19:50)까지 운영

에어바운스 이용 2층 구비, 1시간 1천원

※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이용 시 필수 장갑 착용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부 725-9462

민속 얼음썰매장



장소 탄천 태평동 물놀이장

운영기간 2009. 12. 19~2010. 2. 21

이용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탄천관리과 시설물관리팀 729-4343~6

성남시청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전당’

각종 시설물 시민에게 개방하여 편의 제공



중원구 여수동에 위치한 성남시 신청사는 인텔리전트 빌딩과 인근공원을 연계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답장 없이 조성했다. 그리고 실내 일부와 옥외시설 전체를 시민들에게 연중무휴로 무료 개방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사가 미리 둘러보았다.

실 사용공간의 33% 개방

신청사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에 연면적 7만5,611㎡다. 별도인 의회청사와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을 제외한 본청사 지상층 전체면적 4만3,777㎡ 중 공용면적을 뺀, 실 사용공간 2만9,750㎡의 약 33%인 9,828㎡를 시민 개방공간으로 할애했다.

직원들의 업무공간은 본청사 4~9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청사 사용공간에 비해 약간 큰 정도다.

실내 1~3층 시설

전시회 장소 시청사 1층 현관 · 대강당 로비와 의회 1층 로비는 내 고장 상품, 전통예술품, 산업발명품 등의 전시회 장소로 활용돼 벌써부터 각종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회의실** 600석의 대강당(1층)을 비롯해 대회의실 · 중회의실 · 소회의실 등 6개소(3층)는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행사공간으로 전면 개방하고 있다. 2009년에는 주중(09:00~22:00)에만 운영된다.

도서관 · 홍보관 책 속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2009년에는 주중 09:00~18:00에만 운영)과 성남시의 역사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홍보관(관련기사 3면)이 2층에 있다. 각종 문화강좌를 선보이는 문화강좌실, 여성휴게실, 취업 및 소비자정보센터 등도 2층에 자리 잡고 있어,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또 1~8층 휴게공간과 은행(1층), 구내식당과 연금매점(3층) 등이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사 옥외공간

야외에식장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토 · 일요일, 공휴일에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너른트(음악분수) 주변, 프로그램 주차장, 공원, 대강당 등 원하는 장소에

서 식을 올릴 수 있다. 장소와 시청 보유 장비는 무료로 제공되며, 결혼식 관련 식사와 소품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야외콘서트와 영화상영 경쾌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음악분수(너른트) 주변에서 내년 6~9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예술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수 · 국악 · 합창 · 관현악 · 풍물난다 공연 등 야외콘서트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겨울레포츠 프로그램 주차장에는 야외스케이트장이 들어서 겨울철 놀이로 아이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하 1,2층과 옥외에 총 1,108대의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접 근린공원

시청 주변 공원은 생태연못(벽천호수) · 다목적극장 · 배드민턴장 등을 갖추고 있고, 자전거도로 ·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의 여유로움과 운동의 활력을 제공해준다. 그네와 미끄럼틀, 철봉 등 인근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 좋은 운동시설도 있다.

스텔스 항공기를 본떠서 지었다는 신청사, 밖에서 보면 웅장하고 선뜻 발 들여놓기 쉽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용객을 위한 아가자기한 배려가 많다.

성남시의 상징물이자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민탑, 신청사가 머지않아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명실공히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본다.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주요 시설 이용 및 대관 안내

대강당 · 로비 · 옥외 시설물 회계과 청사관리팀 729-2771~6

야외스케이트장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부 725-9462

각종 회의실 총무과 총무팀 729-2181~9

열린 도서관 총무과 기록물관리팀 729-2211~5

종합홍보관 홍보담당관실 미디어홍보팀 729-2062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승인

신흥2 · 중1 · 금광1 구역 공동주택 총 9,049세대 건립



성남시는 1단계 단대 · 중동3 구역에 이어 12월 4일 2단계로 신흥2 · 중1 · 금광1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승인 고시했다.

이번에 승인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은 3개 구역 총면적 54만5,863㎡(16만5천여 평)에, 신흥2구역 3,299세대, 중동1구역 1,822세대, 금광1구역 3,868세대 등 총 9,049세대의 공동주택(분양 7,401세대, 임대 1,648세대)을 건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시 ‘숲 · 내 · 골’을 주테마로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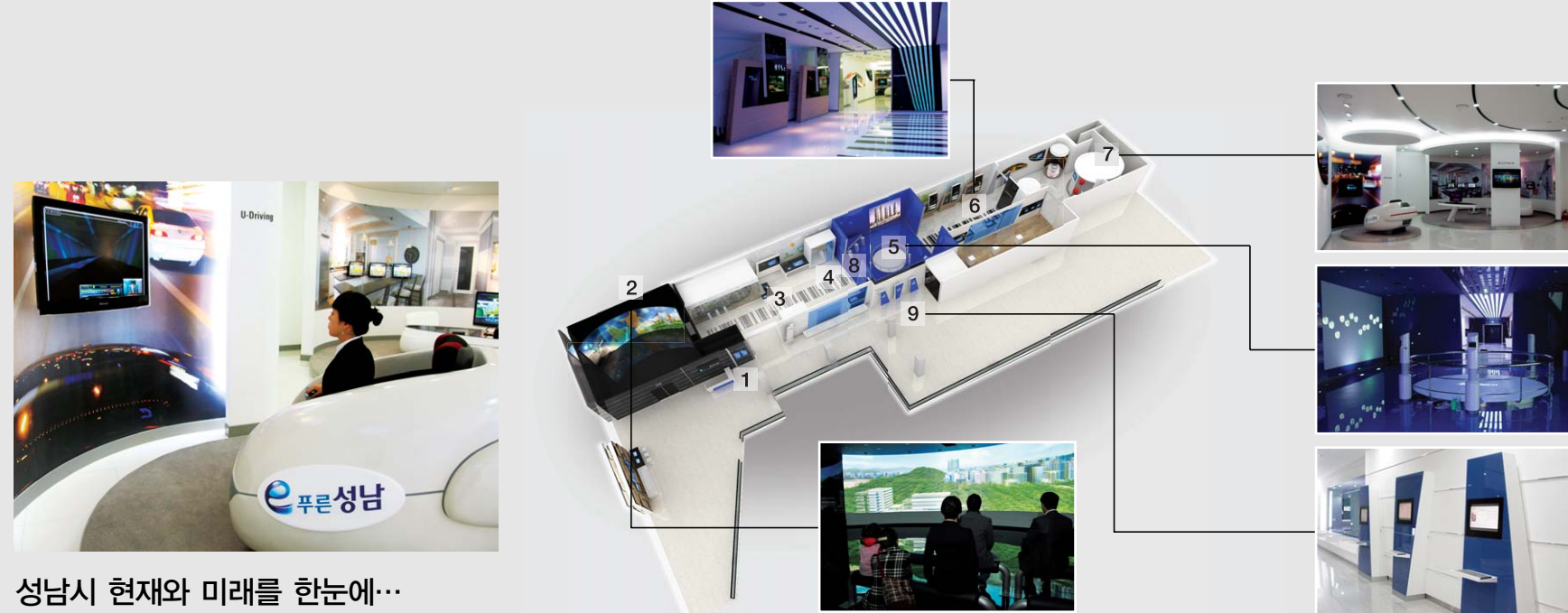
공간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현상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국제자문을 얻어, 경사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계획과 주변지역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설계를 도입했다. 앞으로 지장물 조사와 자선평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엔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등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주 및 세입자들은 내년 상반기 중 판교지구 내 순환용 이주주택 4,993가구에 이주하며, 자체 이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옥주와 세입자의 대량 이주에 따른 주거불안 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정비방식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임시로 살 아파트에 입주시킨 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지은 아파트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미 1단계 주택재개발 구역인 단대 · 중동3 구역은 지난 5월 도촌동 순환 이주용 주택으로 이주 후 철거를 마치고, 2011년 재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729-4433

사진으로 보는 성남시 종합홍보관



성남시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9개 테마관에서 생생체험 가자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정책과 산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2층에 위치한 성남시 종합홍보관은 9개 테마관을 갖춘 참여와 체험의 전시관이다.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단체관람(20인 이상)은 예약 시 도우미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둘러보는 데 약 30분이 걸린다.

홍보담당관실 미디어홍보팀 729-2062

1. Welcome to e'dum
2. 하늘극장(3D 애니메이션)
3. 지역의 시간들 성남의 연대표와 명인을 통해 알아보는 역사 속의 모습들
4. 체험으로 읽는 성남 in 환경, 가상투어, 페스티벌, 공원, 미래시장 등 성남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코너
5. 블루드림 유니버스 감성적으로 성남을 느끼고 탐색해보는 코너
6. 행복 배양 프로젝트 균형있는 첨단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 살맛나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환경도시, 향기있는 문화도시 성남의 경제와 산업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는 코너
7. 유비쿼터스 월드 가까운 미래에 우리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빛낼 성남의 유비쿼터스 인프라와 산업
8. 만들어 가는 성남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유와 교류의 공간
9. 나의 손길로 성남의 앞선 IT산업과 시민이 만나는 자리로 즐거운 게임과 휴식을 위한 코너

시/정/알/림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

- 내용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필요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처리
- 이용방법 전자정부 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통합신청서로 일괄 신청
- 추진일정 올해 말까지 이사 및 사망 관련 민원 등 5종, 내년 상반기 출생 관련 민원 등 5종, 내년 하반기 혼인 관련 민원 등 5종을 추가해 총 15종 일괄서비스 추진 예정

민원여권과 민원팀 729-2375

수질검사 안내

성남시 정수과는 2008년 3월 환경부로 부터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제23호)으로 지정 받아 먹는물인 샘물, 지하수, 저수조, 정수기 등의 수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까운 복정정수장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다.

- 수질 검사 대상
- 먹는물 관리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 물공동시설(약수터)
- 지하수법 및 수도법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급수설비(저수조, 급수관)
- 기타 : 욕조수, 학교정수기, 기타 참고용

정수과 수질시험팀 729-4148~9

부채문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 성남출장상담소 개설
- 위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9 대덕프라자 6층
- 내용 부채문제 종합상담, 신용회복지원 신청(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인터넷 주소 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성남출장상담소 1600-5500

2009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발표회

에너지 절약 10%를 위한 아름다운 비상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에서도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회장 송태수)·에너지시민연대·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대대적인 전기 에너지 10% 줄이기 운동을 실천했다.

정자동 느티마을공무원아파트와 이매금강아파트, 하대원동 아튼빌아파트, 은행주공아파트 등 4개 아파트 5,798세대가 참여했다. 아파트 주민들 중 자발적인 에너지 활동가 모임이 형성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열어 인근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 어냈다.

다양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내보

지난 12월 7일 시청에서 열린 '2009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21명이 생활 속 아이디어를 속속 내놓았다. 은행주공아파트 주부 김은숙 씨는 "불필요한 전기

코드는 뽑아 놓고, 냉장고 정리와 세탁기 활용으로 전기 에너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어린이부터 주민들이 참여했던 나눔장터 행사는 아주 신선했다"고 말했다. 느티마을 주부 강순녀 씨는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한 EM을 활용한 물 절약과 초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 줄이기를 소개하고, 에너지 활동가인 주부 최선자 씨는 "우수 절약 가구에 절약 멀티탭을 전달하며 참여를 독려했고, 한등 끄기 운동과 야광물건을 놓아두어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소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매금강아파트 주부 김연신 씨는 천정집까지도 멀티탭 사용으로 절약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아튼빌아파트 부녀회장은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이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절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한 사례를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작은 실천이 가슴에 와 닿았다. "아빠는 전기난로를 사용하지 않고 옷을 두껍게 입고 계시고, 저는 학용품, 이면지도 아껴써요."(방곡현·상원초 5) "엄마는 세수한 물로 양말이나 걸레를 빨아요. 저는 불이 잘 꺼졌는지 확인해요."(방가현·상원초 1)

이날 발표회를 계기로 자발적인 에너지 활동가가 많이 양성돼, 100만 성남시민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에너지절약 10%를 향한 아름다운 비상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문의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756-5331
신성장녹색과 신재생에너지팀 729-3283

이화영 기자 maekr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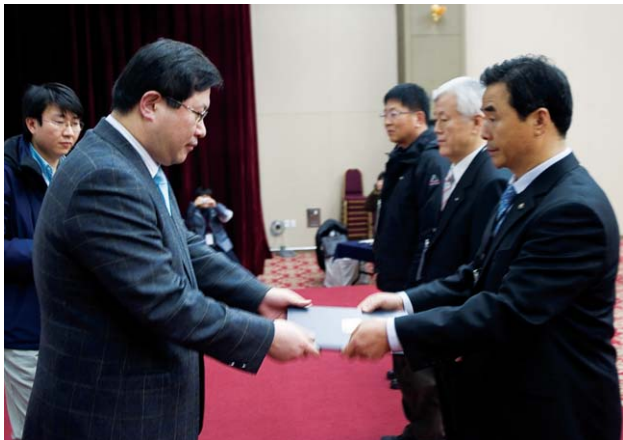
포토뉴스

식중독 예방 '전국 최우수 기관'

성남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국 2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2월 10일 시상과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평가단을 구성,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병원·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334개소, 음식점 198개소 등 총 532개소의 식품 안전지수를 자체 평가해왔다.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729-3132



2010 새해 천제봉행(天祭奉行) 개최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경인(庚寅) 신년을 맞이해 '2010 새해 천제봉행'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일시 2010.1.1(금) 오전 7시부터
장소 성남시청사 앞 광장(중원구 여수동 소재)
행사내용 성남시립국악단 '타악 퍼포먼스' / 천제봉헌(天祭奉獻) / 새해 메시지 낭독 및 축시 낭송 / 시민 대북 타고, 성남 오리틀 농악 공연 등

성남문화원 사무국 756-1082



아이날기 좋은세상 성남운동본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9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아이날기 좋은세상 성남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주최하고 신구대학 산학협력단과 '아이날기 좋은세상 성남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12월 22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본부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양육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29-2833

2009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신한은행 'e푸른경기동부C●P', 배식봉사·환경보존 활동 등



배식봉사



나눔명찰 달기 캠페인

"올해 기업과 대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관내 33개 전 영업지점에서 300여 명이 참여해 매월 지정별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어요." 자원봉사센터 유리나 씨는 2009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팀을 이렇게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4년 7월 'e푸른경기동부CoP'(회장 최영수)를 발족한 이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성숙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금동지점은 3월과 4월에 걸쳐 최영수 지점장 외 13명이 청솔사회복지관을 찾아 홀몸노인에게 따스한 밥을 지어주고

도시락을 배달했다. 김계인 계장 팀, 전용운 부지점장 팀, 신임 윤기준 주임과 황인성 부지점장은 각각 아파트 2개동을 맡아 도시락을 기다릴 어르신을 생각하며 뛰고 또 뛰었다. 윤기준 씨는 "홀몸노인들은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 주었는데, 그 따스함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영장산 등산로 생태탐방과 보존활동, 나무명찰 달기, 어린 목목 가꾸기 및 주변 풀베기를 실시하며,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 종류가 여섯 가지나 된다는 것

관내 33개 전지점 300여 명 참여 이웃과 함께하는 신한은행 봉사단

신한은행 경기동북부지역 식구들은 지난 봄 분당검푸마리톤대회에 참가했다. 화창한 봄날에 파이팅을 외치며 함께 뛰어가는 모습에서 진한 동료애를 느끼기도 했다.

마리톤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며 뒷정리를 하는 자원봉사활동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신한은행 봉사단은 은행장을 단장으로 전 직원이 봉사단원이 되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기업문화의 한 축으로 하면서 아름다운 은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장영철(NHN출장소) 간사는 말했다. 이들의 자원봉사는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행복과 마음 한쪽에서 커지는 기쁨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09년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2009.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 부 기간	2009. 12. 16~2009. 12. 31
	납 부 장 소	성남시 관내 시중은행, 세마을금고, 전국 농협·우체국
	편 리 한 납 부 방 법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납세자보관용 좌측상단)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 삼성·신한·현대카드 홈페이지 신한·현대카드(삼성카드 제외), 각 구청 방문납부 전화납부 : 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
	문 의 처	수정구 729-5150~3 / 중원구 729-6150~4 / 분당구 729-7150~5

2010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하시는 달 (연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 시 10%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신청대상자	2010. 1.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신 고 납 부	2010. 1. 4~2010. 2. 1
	신 청 방 법	인터넷(위택스 : www.wetax.go.kr), 전화, 각 구청 방문
	연 납 효 과	연 세액의 10% 공제
	납 부 방 법	정기분 납부방법과 동일
	문 의 처	수정구 729-5150~3 / 중원구 729-6150~4 / 분당구 729-7150~5

특특! 법률상담

계모자 간의 상속관계



Q A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 후 동생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을 키워준 새어머니에게 친어머니 이상의 감정을 교류하며 살았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주택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과 나눌 생각으로 어머니의 명의로 단독상속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은 그 집을 나눌 의무가 없다며 A씨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혈족은 혈연관계로 형성되는 친족의 관계로 친자(親子)·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입양 등의 방법으로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족으로 의제되는 법정혈족이 있다. 그리고 인척은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친족의 관계로 민법 제769조에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그 인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와 그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A씨의 혈족인 아버지의 배우자로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순위를 보면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새어머니의 친자인 A씨의 동생만이 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주택은 A씨의 동생이 단독상속할 수 있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

취업이 희망!

경기도기술학교 2010학년도 무료교육생 모집

모집내역(9개 과정 190명)

구분	과정	정원	모집인원	교육기간
1년	첨단기계	30명	20명	2010.3.3~2011.2.25
	전기에너지	30명	20명	
	전기제어	30명	20명	
	특수용접	40명	25명	
	컴퓨터시스템	30명	20명	
	정보통신시스템	30명	20명	
6개월	자동차장비	40명	25명	2010.3.3~2010.8.27
	기계CAD	30명	20명	

모집방법

- 원서접수 : 2009. 12. 1~2010. 2. 22
 - ※ 면접 2010. 2. 24(수), 합격발표 2010. 2. 26(금)
-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vo.gg.go.kr) 또는 방문 접수
- 응시자격 :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55세
 - ※ 단체생활에 자립이 없는 사람
- 면접 시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분증 지참,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 1통

교육생 특전

교육훈련비 무료(전액 도비), 원거리 교육생 기숙사 및 급식 무료 제공, 군 입영 연기 및 예보군·민방위교육 유예, 졸업생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교육훈련수당(월 20만원) 지급, 등·하교 시 통학버스 운행, 여가생활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제공, 국가기술자격 시험수수료 지원(1년 과정), 우수교육생 국외연수 기회 부여(1년 과정)

경기도기술학교 031-240-4721~4



제166회 정례회 개최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의사일 정으로 제166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에 상정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3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2009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 처리했다. 또한 32일차인 12월 21일 제4차 본회를 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지난 11월 24일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8건의 시정요구와 좀 더 개방적인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57건의 건의사항 및 9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마무리 지었다.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지난 11월 27일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1건, 건의 82건 및 11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마무리 지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는 지난 11월 25일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보건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20건, 건의 62건 및 28건의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마무리 지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지난 11월 23일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과 관련 민원현장 등을 방문 하였다. 이날 두 번째 방문지인 중3구역 재개발 1단계 현장을 방문, 재개발 관계자로부터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동네 공부방은 “가깝고, 무료라서 더 좋아요”

도서 대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멀티 공간 공부방



3개로 모두 11개가 운영되고 있다. 공부방은 주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약간의 도서도 비치되어 도서 대출도 함께하고 있다. 분당구 상록마을에 있는 공부방은 3천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기도 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도 있다. 중원구 은행2동에 있는 공부방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겨울에 학생을 모집해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수학,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영어 수업을 한다. 또한, 인근 태고부대 군인들 중 3~4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주 월요일에 찾아와 원어민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수요일에도 자원봉사 선생님이 오는데 고1 수학을 담당한다. 은행2동 공부방은 2층에 작은 도서관도 함께 있다.

지역 내 공부방은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으나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대부분 오후에 문을 열고 휴무일과 운영시간이 공부방마다 다르니 공부방에 가기 전에 미리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따뜻한 아랫목에 자꾸만 눕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다잡은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려 한다면, 집에 이것저것 눈길을 끄는 것이 많아 책에 집중할 수 없다면, 사실 독서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잠깐 고개를 돌려보자. 가까운 곳에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방이 있다.

구미동 무지개마을 신한·진영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찾아가 보았다. 총 51개의 좌석이 있으며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에는 남학생방과 여학생방이 있고 약간의 도서가 비치돼 있었다. 마칩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공부방에 찾아 온 구미동 2학년 김대영, 강준모 군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공부방이 집에서 가까이 있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좋아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공부방 관리실장은 “지역 주민들도 공부방이 많은 도움이 된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히 공부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몇 학생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개별 책상마다 조명등이 있고 공부방 내의 온도도 적당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

우리시에 있는 공부방은 시의 재정 지원이나 일부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198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공부방은 수정구에 6개, 중원구에 2개, 분당구에

청소년 공부방 현황

구	주소	좌석수	휴무일	개관일	연락처
수정구	신촌1동 5055	64	월	1989.5.13	757-2785
	신촌3동 3907	56	목	1990.8.14	746-9395
	태평3동 4759	70	월	1990.8.30	757-6522
	수진동 1279-1	86	수	1989.10.1	751-4573
	수진2동 3896	40	화	1990.8.30	757-6523
중원구	고동동 396-9	52	금	2001.3.1	723-8058
	은행2동 959-1	56	일	1989.4.12	731-7062
	상대원1동 279-1	96	화	1997.3.1	734-1207
분당구	구미동하안마을	59	월	1997.4.24	717-1050
	정자동상록마을	36	추석·설연휴	1997.10.4	713-3957
	구미동무지개마을	51	수	1998.4.8	713-3830

클릭! 겨울방학 나들이

겨울방학, 집 밖으로 나가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면 이곳은 어떨까?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에서 작지만 뿌듯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 누리는 겨울특강

관내 공공도서관은 방학을 맞아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겨울방학특강과 겨울독서교실을 마련하고 대부분 접수를 완료했다.

그 중 12월 29일부터 모집하는 중원도서관 문화교실 겨울특강을 살펴본다. 겨울특강은 오는 2010년 1월 9~30일 3주간 무료(교재비, 재료비는 본인부담)로 운영되며, 수강생은 12월 29일부터 선착순 인터넷(<http://jw.snlb.net>) 접수한다. 강좌는 ▲초등학생 대상 영어 정보책의 힘, 위인탐구 역사논술, 나만의 독서노트(북아트), 마음이 자라는 미술 놀이터를 비롯해 ▲6~7세 유아와 부모를 위한 우리 가족 소망연 만들기 ▲성인 대상 ‘아이들 위한 사람의 대화기술’이 진행된다.

중원도서관 정보봉사파트 752-3916

문화 휴식의 공간 청소년문화의집

지난 12월 10일 개관한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 가면, 문화



강좌·역사체험 등 다양한 교육·문화활동과 청소년활동, 방과후 교실, 상담 등을 무료로 접할 수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뎀스 연습실, 청소년유희카페존(노래 연습실, 보컬연습실, DVD실, 인터넷부스, 게임존, 북카페),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작은도서관, 상담실, 강의실, 다목적문화홀 등을 갖

추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휴식과 복지 공간을 제공한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731-3053

지역청소년센터에서 기초학습 다지기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는 과목별 기초학습,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학습에 곤란을 겪고 있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원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수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6학년(예비 중1), 중1~2학년이며 학습과목은 영어·수학으로 수시 모집한다.

또한 자신의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진정한 취미생활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힙합동아리, 애니메이션동아리, 영화동아리, 핸드메이드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열정이 있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화나 이메일(snyouth@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731-9808



나윤주
(27·이매동·SBS 입사)

늦더라도 신중하고 진실하게

올해 학창시절에 배웠던 여러 지식과 짧은 내공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남작하게 엎드려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2010년 '호랑이의 해'에는 우선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더 배워서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쌓고, 저를 더 낮추고 깊이 생각해 행동에 옮기는 신중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했던 약속, '진실하기'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정영재
(50·수내동·인토문화재단원장)

무병장수 시대 열어가는 한 해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료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막연한 불신으로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건강이 증진되어 유병장수의 시대에서 무병장수 시대를 열어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51·상대원동·태원고 교사)

사랑과 봉사로 진정한 스승을 꿈꾸다

교육자가 지녀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질은 아이들 수준으로 눈높이를 같이해 인내하고 좀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자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참교육자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선생은 만나기 쉽지만 지혜를 일깨워 사람을 만들어 주는 스승은 참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해도 사랑과 봉사는 교육자의 생명이자 희망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누구엔 미피엔
(20·태평동·주부)

한국말 빨리 배워 친구 많이 사귀었으면

올해 8월에 베트남에서 시집왔습니다. 베트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한국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문화센터에 나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빨리 배워 새해에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다문화센터에 있는 여러 친구들도 직장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49·북정동·(주)한음사 경영)

세계가 나의 무대다!

15년째 (주)한음사를 경영해왔는데, 한음사는 '별밤지기'라는 브랜드로 온돌형 노래방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적인 놀이문화에 한국적 전통생활문화를 접목해서 해외에 특화상품으로 내다 팔려고 했던 것으로, 지금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호랑이처럼 멀리, 높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기백으로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전성남 독자 여러분도 새해엔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10 경인년(庚寅年) 새해에 바란다! 성남시민 9인의 희망 메시지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온다.

올해 소망이 경기회복이었다면

내년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고 한다.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늘어나는 등 어려운 시기지만

호랑이의 기상으로

활기차게 내달릴 때다.

새해엔 어떤 꿈이 있는지

성남시민 9인의

신년 메시지를 들어본다.

고정자 기자 kh6488@hanmail.net
구현주 기자 sunlin-j@hanmail.net
박인자 기자 ninga0805@hanmail.net



장미라
(48·상대원동·상대원라디오방송국장)

상대원 방송국과 재래시장이 번창하길

올해는 상대원 시장 '신나는 상대원방송국, 원다방'의 국장 업무와 라디오 진행을 맡으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새해에도 불황을 몸소 느끼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송, 유익한 방송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봅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과 상인들과 함께할 행사도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문화재단에서 만든 상대원라디오방송국과 재래시장이 많은 사랑을 받아 더욱 번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히지향
(52·아람동·철보작가)

열정 가득한 작품세계에 도전

철보공예는 차갑고 단조로운 금속에 문양의 입체적인 표현과 색깔 조화 감각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많은 고민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진통을 겪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희열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새해에는 한국과 일본 철보작가협회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철보작가협회 정기전에서는 나만의 방식인 '점묘법' (점으로 물체를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 철보의 맑고 영롱한 색깔로 전통 장롱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대작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800도의 가마 안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것처럼 제 작품 세계도 정열적으로 떠오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두환
(22·은행동·소망재활원)

나를 위한 무한도전의 해!

지체장애2급인 제가 소망재활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자원봉사자 관련 업무를 맡은 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자 교육 및 배치, 확인증 발급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확인증을 발급할 때 시간계산을 잘하지 못해 몇 번을 발급하고, 또 타수가 느려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일합니다. 새해엔 지금의 자원봉사 담당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할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씩씩한 '나'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조유신
(36·서현동·뮤지컬 배우)

국내 창작뮤지컬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신종플루와 침체된 경기 때문에 뮤지컬 관객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와 사람은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창작뮤지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라이선스 뮤지컬보다 국내 창작뮤지컬이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엔돌핀 UP!
동아리 탐방

♫ 집배원 일은 천직... 음악은 즐기고 사랑은 나누고 ♫

성남우체국 '상수밴드'

성남우체국(국장 정중호) 집배원으로 구성된 '상수밴드'는 음악을 통해 사람냄새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에게 언제나 반가운 집배원들이다.

상수밴드는 지난 2000년 이상수·박성봉·조대기·양윤진·김정수·김현국·김종년 7명의 창단멤버로 결성되었으며, 밴드 이름은 리더인 이상수 집배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상수(34·리드기타) 씨는 "우체국 내 집배원별 노래경연대회에서 기타와 키보드를 이용한 연주가 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이 밴드를 결성하게 된 동기"라며 "취미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 언제가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하며 웃는다.

좋아하는 음악으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상수밴드 구성원들은 벌써 3년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은 배달구역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우리공동체'를 찾아 같이 영화도 보고 쇼펍들도 구경하는 등 놀아주기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들을 위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랑과 꿈의 라이브 공연'을 펼쳐 바깥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서로 친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밴드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공연 중에 여자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에 골인한 것이라는 이상수 씨. 친구를 따라 잠깐 건반연주를 도와 주러 왔다가 상수밴드의 구성원도 되고 집배원도 됐다는 유연홍(29·베이스) 씨, 한 번만 쳐보라며 줘어준 스틱을 거절 못하고 잡았는데 이제는 기타까지 치며 8년째 상수밴드 주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안천용(31·



이상수, 안천용, 정병석, 조대기, 유연홍, 윤진희(시계방향)

세컨기타) 씨, 그리고 키보드의 신다혜(25) 씨는 지난 11월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여전히 상수밴드 연습에 함께하고 있다. 음악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더 좋아서란다.

이렇듯 좋은 사람 16명이 구성원인 상수밴드의 레퍼토리는 거위의 꿈(인순이), 사도라면(노브레인), 담뱃가게 아가씨(윤도현밴드), 밤이면 밤마다(김경호 버전) 등 20여 곡이다.

상수밴드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팀워크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창단 첫해 성남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가진 콘서트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무대 연주회를 갖

고 있다. 연주 실력도 눈에 띄게 탄탄해져 2006년에는 한국노총 근로자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작년에는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 기량을 맘껏 뽐내기도 했다.

연말연시, 누구보다 바쁘게 한 해를 보내고 맞는 상수밴드 구성원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전국투어를 초청받아서 해보고 싶어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 하하하~" 상수밴드 구성원들은 집배원 일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음악을 즐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유쾌하고 멋진 젊은이들이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올해의 과학교사' 풍생중학교 김정원 부장교사

학교 공동영재학급 운영으로 과학교육 중요성 알려



12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올해의 과학상 시상식에서 우리시 소재 풍생중학교 김정원 부장교사(사진)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이 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심화학습 등을 성실히 수행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처음엔 '미래 과학자가 되고 싶거나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우수학생들의 기초적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교사인 내가 해보자'는 생각으로 심화학습 정도로 시작했어요. 우수한 학생들이라 흡수력도 빨라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힘은 들지만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학교도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역으로 확대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김 교사는 개인적으로 지도해오던 수업을 도교육청 승인과 시교육청 지원을 받아 수정·중원구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영재교육'으로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연간 157시간의 '지역공동영재교육'은 사회적 교육이념이 정립돼 있어야 가능한 일로 교장선생님과 재단에서 적극 밀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한다. 현재 10여개 학교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바란다

김 교사는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교내 과학동아리 'C's ROBO(로봇동아리)'도 이끌고 있는데, 경기도학생

과학동아리발표대회에 나가 2008년 은상에 이어 올해에는 동상을 차지했다. 또한 교육관계자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경험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홍보하며, 학교나 개인의 발전에 머물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노력들이 밑거름이 돼 풍생중학교는 2007년에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타 학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묻자, 김 교사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음에도 좋겠다는 바람으로 대신한다. "중학교 때는 너무 집중적인 주입식 교육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무엇에 소질이 있고 좋아하며, 행복한지를 느껴야 하잖아요? 이 시기에 넓고 깊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서 학생들이 관심영역 분야에서 꿈꾸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진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어 "무엇보다 암기를 잘해서 점수 1점을 올려야만 공부 잘한다고 인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받게 되는 상금은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박경희 기자 jkh2234@hanmail.net

현장 스케치

5678 서울도시철도공사

8호선 복정역사



복정역사 인터넷 카페 '복정역 소곤소곤 이야기'

지하철이 주는 편리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직원들의 하루는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각 지하철 역사들은 카페를 개설해 활동 중인데 그중 카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8호선 복정역사(역장 정운암·사진)를 방문했다.

200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에서 운영하는 8호선이 10점 만점에 8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부심을 안고 복정역사에는 직원 10명, 사회복무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새로 부임한 정운암 역장은 "역장이 따로 없어요,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사훈이 '고객만족'인 것처럼 고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직원들은 언제든 발 벗고 나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며 다짐을 해보인다.

정 역장이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복정역 소곤소곤 이야기'는 하루 700여 명의 방문자를 자랑할 만큼 인기 있으며, 카페 제목처럼 다양한 내용, 특히 <비전성남>의 내용 중 일부를 실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고객만족과 안전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직원 전체가 승강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는 정 역장은 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사무실 내의 모니터를 직원들이 교대로 살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취약개소 순회 및 각종 민원 예방, 친절하고 공손한 고객 안내 및 응대, 자동매표 관련 안내근무(게이트·판매기) 등을 잠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선로자살 및 취객 선로 추락의 위험을 막기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12월 19일 개통식을 갖고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일일 종이승차권 대신 카드가 사용되며, 500원 가산해서 구매하면 내릴 때 현금급 기계에서 5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복정역은 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하루 9만6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복정역사 02-6311-8201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lj8200
이길삼 기자 eks323@hanmail.net



까치와 호랑이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호랑이띠 해이다.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나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이야기는 세 살 어린아도 아는 이야기다. 성남의 역사 속에는 호랑이와 얽힌 이야기가 몇 가지 전해온다.

호랑이 다섯 마리를 잡은 이효백의 기백

조선 중기의 문신 송언선(宋言愼·1542~1612)은 상대원에 묘가 있었는데, 그는 명종 때 불교를 배척하고 승려 '보우'를 죽이라고 건의했다. 그는 30년간 선조 임금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바른 말을 하기로 유명했다. 선조 임금은 그의 늠름한 건의에 답(答)을 내리면서 "만대의 정론(正論)"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용맹한 호랑이가 산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처럼 사람의 인품을 논하는 데 종종 호랑이를 비유한다.

그러나 호랑이는 사람을 많이 해치기도 했다. 분당 석운동에는 성남시 향토유적 제8호인 이효백(李孝伯)의 묘가 있는데, 호랑이가 청량동에서 사람을 해쳤으므로 이효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양주·광주 등지에서 잡았다.

또 선조 4년(1571)에도 광주에서 호랑이 다섯 마리를 잡았고, 정조 임금 때는 진부(律夫), 유대금(柳大金), 남명계(南命戒) 등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호랑이에 물려 죽었으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내려 주기도 했다.

기우제, 전통 민속에 영물 호랑이 등장

성현(成僔)의 <<용재총화>>에는 기우제를 지낼 때 호랑이 머리를 물속에 넣어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전통 민속에는 호랑이가 자주 등장한다. 새해가 되면 이른 새벽에 닭 그림과 호랑이 그림 따위의 여러 가지 그림을 대문 간과 창문에 붙여 나쁜 기운을 막았다. 중국에서는 물고기가 재물을 상징하므로 연하장이나 장식용 벽걸이에 많이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 복을 부르는 고양이 장식품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

잘 발달되고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목표물을 향할 때의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의 호랑이는 산군자(山君子), 산령(山靈),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으로 불리는 '백수의 왕'이다.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했다. 우리 조상은 이런 호랑이를 좋으면서도 싫어하고 무서우면서도 우려했다.

호랑이는 신의 뜻을 전하는 까치의 심부름꾼

한명회와 호랑이에 얽힌 설화는 옛 조상들이 인물을 평가할 때 어떤 사고를 했는지 보여준다. 글방이 멀어 밤이 깊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한명회 앞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한명회를 등에 태워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호랑이는 합정에 빠져있었다. 이에 한명회가 호랑이를 잡은 주인에게 돈을 주고 구해준다.

호랑이는 한명회의 품에 안겨 눈물을 지었다고 한다. 역사 속 인물과 관련한 설화뿐 아니라 산신도에서도 호랑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백발노인이 쓰다듬고 있는 호랑이는 산신령의 사자로 상징되거나 산신, 산군으로 불려 신성시됐다. 또 <까치와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까치는 나라의 새이면서 길조다. 이 그림들 속에 호랑이는 대개 까치에게 골탕을 먹고 바보스런 표정을 짓거나, 까치가 전해준 신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보은을 상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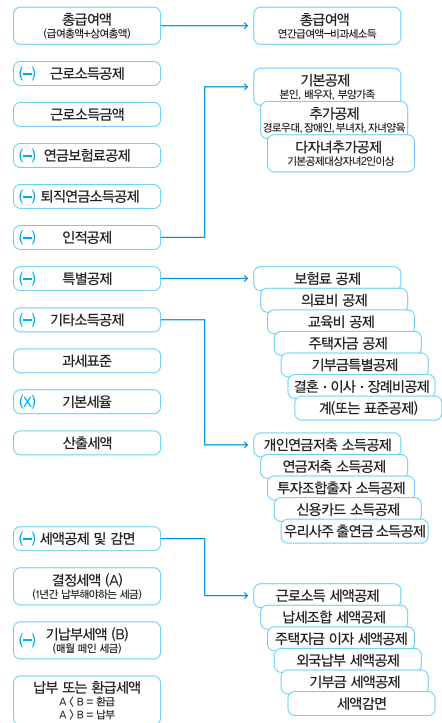
자료제공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정리 | 윤종준 상암연구위원

* 이번호로 성남 역사 이야기 연재를 끝냅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생생 재테크 11

연말정산 흐름도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500만+초과분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1,000만+1,500만 초과분+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225만+3,000만 초과분+10%

4,500만원 초과~ : 1,375만+4,500만 초과분+5%



책 읽는 성남

시 청사 내 아늑한 공간

내 집처럼 편안한 ‘열린 도서관’

지난 11월 중원구 여수동 200번지로 자리를 옮겨 새 보급자리를 꾸민 성남시 청사. 신청사에 들어서면 왼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보인다. 마치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계단을 오르면, 바로 앞에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쉼터 ‘열린 도서관’이 있다.

소박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열린 도서관은 1만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 중 어린이 전문도서는 2천여 권이 마련돼 있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동반하는 민원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정보 탐색용 컴퓨터도 3대나 보유하고 있어 간단히 급한 업무도 볼 수 있다.

“열린 도서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마치 집 거실에 앉아 있는 착각이 들 수 있게끔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 보았어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짧은 시간이 라도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 박수현(충무과 기록물관리팀·사진) 씨의 바람이다.

아직은 하루 이용객이 많지 않지만 조만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도서 대출은 되지 않는다.

비정기 기자 misop215@hanmail.net



추천 도서

흐르는 강물처럼

파울로 코엘료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출판사

《연금술사》로 더욱 유명한 작가의 작품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단면을 비추어 주며,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책이다.

- 박수현

소득세율변경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비고
	'08년	'09년	
12백만원 이하	8%	6%	2%p
46백만원 이하	17%	16%	1%p
88백만원 이하	26%	25%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 없음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자가 매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연간소득으로 합산해, 기납부 세액과 결정 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해주고 세금을 덜 냈으면 부족분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해 소득이 모두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업소득자와는 달리 특별공제 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부분을 위의 연말정산 흐름도처럼 공제해 주고 있다. 2009년에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어 알아본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전액에서 80%로 축소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교 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변경 사항은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

인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특히 경로 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특별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 및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금년 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비 추가비가 1인당 50만원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기타사항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되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된다.

연말정산은 흔히 ‘13개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세테크도 잘만 활용하면 기본 좋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포도재무설계 재무상담사 남기일 moneyplan@pedafp.com

▶ 소비자 info ◀

캔 식품,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주의

최근 미국 소비자연합의 ‘컨슈머리포트’는 미국의 식품회사가 생산하는 수프, 야채, 참치 등의 캔 식품 25개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 검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브랜드 25개 식품 대부분에서 비스페놀A가 어느 정도 검출되었다.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식품안전 과학자들은 하루 비스페놀A 노출량을 체중 1kg당 0.0024mg(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스페놀A 검출규격기준은 0.6ppm 이하이다. 비스페놀A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1940년대 플라스틱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1960년대부터는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거의 모든 캔 내부에 사용하고 있다. 비스페놀A에 노출되면 생식기 관련 이상, 유방암 및 전립선암, 당뇨, 심장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결과 이번 실험대상 캔 제품 중 일부 제품이 국내 유명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비스페놀A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선한 식품을 선택할 것, 캔 식품, 음료, 주스나 조제분유 대신 대체방법을 고려할 것,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는 유리용기를 사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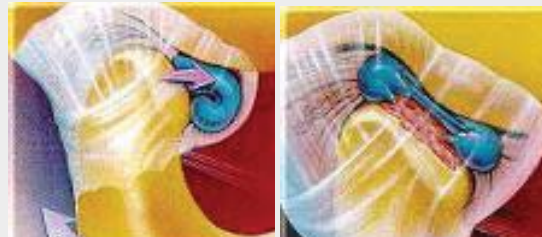
건강 칼럼



분당재생병원 치과센터
이기철 박사

턱관절이 아파요! 턱관절 장애

턱관절 장애는 귓가명 앞쪽의 통증, 소리가 난다거나 입을 잘 안 벌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위의 남자 환자처럼 턱관절 부위의 증상 없이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한다. 턱관절 장애를 진료하는 치과의사도 적은 편이라 일반적인 치료 치료에 비해 치료개념이 다른 편이라 이해하기 힘든 병이지만 턱관절 장애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잘 치료되는 질환이다.



입을 벌릴 때 관절의 머리가 디스크를 밀며 누르게 된다.

즉, 여러 가지 원인으로 턱관절에 힘이 점점 가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씹을 때 많이 놀라게 되므로 치료의 일반적 원리는 이가 맞물릴 때 관절이 압박되지 않게 구강 내 교합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요즈음은 수술적인 치료법은 전혀 권유하지 않는다. 턱관절의 회복을 위해 수개월 정도 장치를 사용하며, 전체적인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 가벼운 운동과 스스로 할 수 있는 따뜻한 찜질 등과 같은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환자의 약 80~90%는 거의 완쾌될 수 있다.

健康百歲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 뇌졸중

뇌졸중이란 흔히 중풍이라고도 하며, 뇌혈관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질환 및 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뇌혈관에 나타난 병적인 원인에 의해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면서 장애의 발생부위에 따라 청신증상 및 신경증상이 급격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뇌졸중의 종류

[뇌출혈] - 뇌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있는 것

[뇌경색] -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불완전해지는 것

● 뇌졸중의 증상

·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약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낍니다.
· 어지럼증이나 구울림 등 청각장애가 발생합니다.

· 한쪽 눈 혹은 양 눈으로 봐도 시야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한쪽 눈이 커튼이 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 사물이 갑자기 이중으로 보입니다.
·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불분명해집니다.

· 두개강내압 감소
·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등 위험요인 조절

· 외과적 치료 : 수술

· 약물요법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739-3000 www.scsch.or.kr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화재 발생 시 행동은

- 건물 등의 화재경보기는 뚜껑을 깨고 빨간색 단추를 누른다.
- 경보기가 없으면 “불이야!”라고 외치며 소리 나는 물건 등을 두드려 여러 사람들에게 알린다.
- 119신고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주소나 찾기 쉬운 주변 건물명, 위치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화재시 대피는

- 사람들 피난 유도 시 큰소리로 외치며 떠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차분하게 행동한다.
- 연기 속에서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되도록 자세를 낮추어 짧게 숨을 쉬며 대피한다.
-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의 막다른 골목이나 열기류가 통과하는 장소, 통풍 구역으로 대피하지 않는다.
- 대피 시 문을 닫아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갇힐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는

- 화재초기일 때는 침착하게 소화기나 소화용수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한다.
- 전기 화재 시는 우선 전기 개폐기를 내려 전기공급을 차단해야 하며, 불길

에 물을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

-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는 큰소리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
- 가스화재 시는 신속히 용기밸브를 잠그고 불길로부터 먼 곳으로 옮기도록 한다.
-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안 된다.
- 화재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의복이나 귀중품을 찾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한다.



소화기 사용은

- 안전권을 뽑고,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한 후 손잡이(레버)를 힘껏 움켜쥔다.
- 소화기 사용 시 유의사항 :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불길의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 소화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소화기를 조작하면, 불길로 인한 화상의 우려와 미세한 가루로 된 소화약제가 바람에 날려 불이 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재난안전과 인적재난팀 729-4442

